

[종합·해설]

D-13

핵심 인사들 호남 집결...김·박·한 지지 호소

<홍업> <지원> <화갑>

오늘 김홍업 신안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참석

이희호 여사 29일 무안·신안 방문 지원 당부

통합민주당과 동교동의 전면전이 가시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총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동교동계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홍업, 박지원, 한화갑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민주당 후보와의 일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의 공천 배제 기준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김대중(이하 DJ) 전 대통령에 대해 손학규 대표가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동교동계의 실력행사로 읽히면서 과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동교동계의 움직임은 DJ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읽히면서 호남지역 무소속 돌풍의 핵으로 작용하는 등 추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고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교동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27일 목포 여객터미널 앞에서 열리는 김홍업 후보 신안군 연락사무소 개소식에 동교동계 인사들이 대거 집결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동교동의 핵심인 김

옥두·최재승·윤철상 전 의원, 남궁진 전 문광부장관, 박양수 전 광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며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도 자리를 함께 한다.

이들은 이날 개소식에서 김홍업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물론 일부는 총선기간 동안 김홍업, 박지원, 한화갑 등 동교동 출신 무소속 후보들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도 29일 무안·신안을 방문, 김홍업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무소속의 박지원 후보는 목포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손 대표는 (나에 대한 공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미망리 침묵해야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정치인의 어긋나고 국가원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옥두·최재승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참석, 박 후보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또 이날 광주 북구갑 무소속 출마자들도 참석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동교동의 핵심인 김

를 선언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면복권된 직후 손학규 대표와 만나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합의했었고 '위상에 걸맞는 대접을 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난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

령을 상징하는 동교동계가 움직이므로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과거 인물들이 나서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무안·신안에서 무소속의 김홍업 후보와 맞서는 민주당의 황호순 후보측 관계자는 "동교동계 인사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며 "김 후보는 동교동 그늘에서 벗어나 정책 대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공명선거 합시다”

광주시 서구 선관위(위원장 구길선) 주최로 26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협약식'에서 18대 총선 서구 출마자들이 공명선거를 다짐하며 손을

/위작령기자 jrw@kwangju.co.kr

민주 광주후보 8명 7대 공약 발표

“무소속 출마자들 시민 심판 받을 것”

4·9총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이 지역 현안 7대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무소속 출마자들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후보 8명은 26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 완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첨단과학산업단지의 R&D 특구 지정과 광주과기원 학부 설립 ▲첨단 노인 건강타운 및 실버타운 조성 ▲광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30% 할당 ▲한국민주주의 전당' 등 민주화운동 기념시설

유치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 등 지역의 7가지 현안을 정책 과제로 제시, 이를 주진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후보들은 또 "당의 엄격하고 툭툭한 '공천 특검'에서 능력, 자질, 도덕성, 역량을 인정받은 후보들이 배출됐는데 검증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입당을 거부당한 '가짜일꾼'들이 무소속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무소속 약진

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영진 서구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우리 '8인 회의'는 공천 확정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면서 "광주 시민들은 무소속 후보가 나서 찬물을 끼얹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지병문 남구 후보는 "탈당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은 입당을 불허 할 것으로 안다"고 했고, 박주선 동구 후보는 "구태 정치의 전형으로, 1인 2표제에서 정당 득표율을 낮추는 과정 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경부운하 저지 당 명운 걸 것”

손학규 민주당 대표

통합민주당 손학규 공동대표는 26일 "경부운하 저지를 위해 당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며 경부 운하의 총선 이슈화에 나섰다.

손 대표는 이날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27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계와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경부운하에 반대하는 제정당, 단체와 함께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경부운하와 영어를 교육을 총선 공약에서 제외한 것은 속임수 정치의 전형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운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 해도 깊이 있게 폭넓게 돼야하며 금년 시작해 임기 내 마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가재정이 들어가지 않고 민간부자에 의해 하겠다고 했는데 국고 보조 없는 민간투자는 없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또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지만 출범 한 달 만에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중앙행정부와 자치단체장을 장악하고 있어 국회마저 장악하게 되면 유신 아래 최고의 절대 권력이 탄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상징탑·아쿠아리움

기본계획에 포함을”

■ 여수 엑스포 조직위 출범… 과제와 전망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으로 정부·국회·민간기업·조직위 등 각 부문 간 협력과 역량이 강화돼 엑스포 준비활동이 탄력을 받게 됐다.

장승우 조직위원장과 기획본부장, 기획총괄팀장 등 조직위 관계자들은 오는 28일 여수박람회 부지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한승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 여수엑스포 현지에서 첫 회의를 가질 방침이다.

박람회 이후 박람회장을 국

제적 해양 문화 관광 거점으로 육상 하기 위해 서는 상징탑, 아쿠아리움 등 관련시설

조직위는 오는 4월 초까지 사무처 구성을 완료하고, 4월 11일 조직위 현관식이 끝나는 대로 박람회 개최준비를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조직위는 우선 정부가 4월 내에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6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5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할 박람회 인정신청서 제출 준비에 주력하는 등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제도정비를 미루리 할 예정이다.

여기에 보안등역증인 박람회 기본계획을 8월까지 확정하고, 박람회장 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박람회장 조성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에서도 4월 중순 '2012여수세계박람회 범도민자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별법 개정과 각종 부담금 면제, 진입로 등 관련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등 협약한 지역투자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특히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타 국제행사와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부담 최소화를 기본전제로 제정됨에 따라 열악한 지역투자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특별법 개정과 함께 관련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등 협약한 지역투자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투자인센티브 조항 반영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게 지역의 여론이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MBC 문화힐링

제작 기획 출판 커뮤니케이션 기획

황산·장가미

한국 대표 미술 출판 출판 기관 협회로 가득 출판하는 MBC 문화힐링으로

무안 + 청주 홍보 협약	
2008년 4월 17일 ~ 5월 20일	제작 기획 출판 커뮤니케이션 기획
무안 + 청주 홍보 협약	
2008년 4월 17일 ~ 5월 20일	제작 기획 출판 커뮤니케이션 기획
무안 + 청주 홍보 협약	
2008년 4월 17일 ~ 5월 20일	제작 기획 출판 커뮤니케이션 기획
무안 + 청주 홍보 협약	
2008년 4월 17일 ~ 5월 20일	제작 기획 출판 커뮤니케이션 기획

■ 광주 / 전남·북 유형여행사 대회 광주MBC 문화힐링 사무실 ■ 전화 (062) 226-6070